

'2026.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2026.5.11.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mail : jang70@korea.kr

# 정 책 질 의 서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른소리하자

**새공무원노동조합**

이 질의서는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민선 9기 대구 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귀하의 답변 내용은 내부적으로는 시도행정포털시스템(노동조합 게시판)에 조합원 및 대구시 공무원과 구군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외부적으로는 새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언론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 대구광역시장으로서의 비전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 후보가 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구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 통합 신공항, 낙동강 물, 신청사,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 등

### ▲ 질의(5개 항목)

후보자께서는 왜 ‘대구시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대구에는 지금 장기적인 산업 침체와 청년 유출, 인구 감소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단순한 행정 경험만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정치력,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국정 경험, 그리고 대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 감각이 함께 필요하다.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며 국정 전반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대구는 정치적 고향이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정치적

도전과 실패, 성장을 모두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는 대구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대구시정을 이끌 계획인지 아래 1번에서 5번까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 1.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문제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연간 5조 원 규모의 자율재정 권한을 약속한 만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교통·정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진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등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지역 주민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완성 시켜야 한다.

행정통합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추진되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2028년 총선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도록 추진하겠다.

## 2. 후보가 생각하는 대구의 문제점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저성장이다. 산업 전환이 늦어지면서 좋은 일자리가 줄었고, 청년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산업 구조와 성장 방식만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과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산업·교통·재정 지원을 끌어와 미래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 3. 젊은 인재가 몰려드는 대구 만들기 방법

결국 청년은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움직인다. 대구가 다시 성장하는 도시라는 확신을 줘야 젊은 인재도 돌아오고 모여들 수 있다. AI·로봇·미래모빌리티·첨단제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동시에 청년 창업 지원과 주거·문화·교통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해 청년이 잠시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바꾸겠다.

### 4. 각 분야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당당한 공무원 문화 조성

대구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 있는

실무자들이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현장 공무원들과의 소통도 정례화하겠다. 공무원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구 혁신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시정을 만들겠다.

## 5. 대구시 미래 발전 방안

대구의 미래는 산업 대전환에 달려 있다. 대구를 대한민국 남부권 판교로 만들어 혁신·산업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 AI·로봇·반도체·미래모빌리티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함께 추진하겠다. TK신공항과 K-2 후적지 개발을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삼아 청년과 기업,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

## □ 공무원 근로조건 등 관련

### ▲ 질의(5개 항목)

1. (단체협약 분야) 대구광역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은 시 직원들과 구·군 직원들로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당선된다면 현재 대구시에는 공무원 노조가 3곳이 있는데 교섭 단일화가 되지 않아 과거 2013년 이후 이때까지 한 번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시장 취임 후에도

교섭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공무원노동조합과 개별교섭도 가능한데, 단체교섭에 임하겠습니까?

① 하겠다. (        )    ② 하지 않겠다. (        )

단일교섭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섭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와의 대화와 교섭을 장기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인사 분야)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구시 직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구시 인사 작태를 보면 학연, 혈연, 지연, 그리고 청탁이나 외부 압력 등 구태의연한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 공정하지 못한 인사망사(人事亡事)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직원이 이러한 인사 작태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교섭이나 시장 면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공직사회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연고나 청탁에 따른 인사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인 만큼,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또한 인사제도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된다면, 인사위원회 노동조합 참가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

3. (직원 근무 평가 분야) 공무원 근평은 근무성적평정(근평)으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평가해 기록하고 승진·인사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대구시 근평은 보통 상반기(11월1일~4월30일), 하반기(5월1일~10월31일)로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부서장이 근평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례들로 항상 근평 시기가 되면 혼란스러운데, 후보께서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근무평정은 공직사회 신뢰와 조직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현행 근평 운영 방식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살펴보고, 직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

4. (청렴도 분야) 대구시는 과거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등급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함께 반성하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중에도 간부 공무원들의 모범과 갑질 및 끈대 의식 근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모범을 보여주실 건지 구체화한 의지와 아울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청렴은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며, 공직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치다. 공직사회에도 MZ세대 공직자들이 들어오는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조직문화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도록 수시교육과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에 앞장서겠다.

5. (공무원 복지 분야) 대구시 공무원의 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연가보상비의 경우 대구시는 구·군 에 비해 연가 보상일 수가 부족해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답변)

연가보상비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 여건과도 연결되는 만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현재 대구시와 구·군 간 운영 현황과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충분히 파악하고, 재정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가보상일 수 확보 방안과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 부여 등을 검토 하겠다.

나. 동인 청사의 경우 직원 주차장이 부족해 요금이 비싼 인근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인 청사 지하 주차장은 특권 의식을 가진 일부가 무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해 주차를 못 하게 하고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추첨 등을 통해 무료 주차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주차 운영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도 연결된다. 시장에 취임 하게 된다면 현재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직원 의견을 경청하겠다. 직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과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

다. 새공무원노동조합은 성평등 조직문화 및 갑질 문제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일탈적 행위로 조직 내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공직사회는 상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사례가 있으며 조직 내 상하 간 갑질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반말’ 문화입니다.

공직 내 성폭력 문제와 조직 내 갑질 문화 해소를 위한 “독립된 인권 보장팀 신설”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갑질 문화는 반드시 예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권익 보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 □ 기 타 (대구시 관심도 분야)

### ▲ 질의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으로 당선되면 4년간 대구시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대구의 장기화된 저성장 구조를 바꾸는 산업 대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AI·로봇·미래모빌리티·첨단제조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신나는 대구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보님의 철학이나 대구시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공직사회가 활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공정한 조직문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현재 절실한 대구경제

를 살리는 최일선에 공무원들이 서있다는 절박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공무원 복지 문제 역시 직원들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2026. 5. //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 후보 : 김부겸 (서명) 김부겸